



‘겨울가뭄’ 비상… 강수일수도 10년새 최저

지난해 10월 이후 석달간 누적 강수량 100mm 못미쳐
1월 비온 날 4~7일뿐… 강수량 급감에 저수율 ‘바닥’
브로콜리·마늘·양파 재배 농업용수 공급 차질 우려도

최근 3개월간 제주지역에 이렇다할 만한 양의 비가 내리지 않은 가운데, 지난 1월 한달간 강수일수는 지역에 따라 4~7일에 그치며 ‘겨울가뭄’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월동채소 재배농가의 물 부족에 따른 시름은 깊어지고, 저수지 저수율은 ‘바닥’을 드러내며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1월 기준, 제주의 지점별 강수일수는 월동채소를 주로 재배하는 서귀포(남

부)와 고산(서부)에 각 4일(평균 8.6일)과 7일(평균 9.6일)에 그치며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머지 제주(북부)와 성산(동부)도 각 7일(평균 제주 10.9일, 성산 11.6일)에 불과해 지난 10년 새 역대 2위 수준을 보였다. 앞서 제주는 2019년 5일, 성산은 2022년 6일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 1월 지점별 강수량도 최근 5년 새 가장 적었다. 지점별로 서귀포 9.5mm, 고산 6.5mm, 제주 6.7mm, 성산 14.7mm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해 11·12월 강수량(강수일수)도 ▷서귀포 34.0mm(5일)·15.3mm(7일) ▷고산 16.9mm(4일)·12.8mm(5일) ▷제주 53.0mm(7일)·16.0mm(8일) ▷성산 55.3mm(7일)·13.0mm(7일) 등에 그쳤다. 최근 3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4개 지점 모두에서 100mm에도 크게 못 미쳤다.

강수량 부족으로 제주도 내 저수지의 저수율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2일 기준 저수율은 25.7%(제주시 14.7%, 서귀포시 45.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위험수위’에 있다. 평년 기준 제주지역 저수율인 57.7%(제주시 55.0%, 서귀포시 62.0%)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본부별 평균 저수율 77.8%에 견줘 1/3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 서부인 제주시 애월부터 서귀포시 대정 구간에서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양파, 무 등 월동채소류가 주로 재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물 부족으로 이들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받고 있어 농가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2일 제주 곳곳에 0.5~3.0mm의 비가 내렸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부지역의 가뭄판단지수(kpa)는 36.15(서귀포)~366.05(청수리)로 대부분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별로 ‘기상가뭄’ 상태다. 가뭄 정보는 20cm 깊이의 토양에서 측정된 데이터로 kpa가 100 이상이면 초기 가뭄, 500이 넘으면 극심 가뭄으로 판단한다.

백금탁기자

해양안전 저해사범

제주해경 집중 특별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사항은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초과 ▷고박지침 미이행 ▷승무기조운 위반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등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18건(21명)이 단속된 바 있다.

특별단속에 앞서 1일부터 8일까지는 일주일간 단속 예고와 지역 언론·전광판 활용 등 홍보 활동을 거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팀별 전담 권역을 지정해 해상 활동과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수상중지자 단속도 병행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제주해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전저해 위해요인 행위에 대해 경비합동 등 현장부서와 연계해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팽생이모자반 수거 작업 2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바다지킴이들이 파도에 떠밀려온 팽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환매권 소송 ‘주목’

원토지주 상속인들 “JDC 때문 환매권 상실” 주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를 둘러싸고 환매권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2일 JDC에 따르면 제주시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 기반 부지로 JDC가 2019년 취득한 제주시 월평동 임야 451㎡의 원 토지주 상속인들이 지난해말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JDC가 2019년 해당 토지를 1억7000여 만원에 사들인 뒤 5년 이내에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원래 토지 소유주가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5년이 지나도록 알리지 않으면서 환매권을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JDC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의 쟁점은 JDC가 취득한 토지가 법이 정한 공익사업 목적에 실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통상 법원은 공공기관은 특정 공익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모든 토지가 기한 내에 실제 이용되지 않았을 때만 환매권이 발생하고, 일부라도 이용했다면 환매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JDC는 이번 소송에 대해 “토지 취득 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한만큼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기자

“보조금 지연·예산 축소로 토요돌봄 공백”

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국비·지방비 모두 줄어”

겨울방학 기간의 예산 지연 및 축소로 토요 돌봄에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역아동센터의 토요 돌봄이 보조금 교부 지연과 지속적인 예산 축소로 겨울방학 기간에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맞벌이 가정 아동의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제도적·재정적 한계를 보이며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시 시설(29인 규모)의 토요 운영 사업비 지원액은 2023년 630만원(국비 330, 지방비 300), 2024년 533만원(국비 273, 지

방비 260), 2025년 370만원(국비 120, 지방비 250) 등이다. 불과 2년 새 국비 지원이 30%대로 급감하며 인건비 지원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안명희 제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눈에 띄게 삭감됐다”며 “특히 토요 돌봄과 관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여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토요 돌봄이 공백 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적기 교부와 현실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지역 교통문화 안전도 ‘평균 이상’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발표

서귀포시 20위·제주시 5위 등 전년대비 상승

제주지역의 교통문화 안전지수가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교통문화지수는 설문조사와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각 지역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지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7~10월 4개월 동안 관측·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교통사고 통계자료는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통계자료를 반영했다.

3개 영역(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에 대한 18개 평가지표를 조사·평가해 교통문화지수를 산출한다. 평가 결과는 4개 그룹(30만 이상 시, 30만 미만 시, 군, 구)으로 나누어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구분했다. 점수와 등급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높다.

분석 결과 서귀포시의 교통문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83.07점으로 C등급을 기록했다. 인구 30만 미만 시 49개 지자체 중 20위다. 지난해

28위에서 8계단 상승했다.

제주시의 교통문화지수는 100점 만점에 87.43점으로 서귀포시보다 높은 B등급이다. 인구 30만 이상 시 29개 지자체 중 상위권인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7위에서 2계단 상승했다.

양 행정시는 모두 지난해 지수와 비교해 소폭 상승했으며, 등급은 유지됐다. 또 세부 항목 대부분은 전국 평균과 유사했으나 전국 평균보다 낮은 항목도 확인됐다.

먼저 안전띠 착용률은 전국 평균 85.38%이지만 서귀포시는 81.22%, 제주시는 74.16%로 조사됐다. 또 운전 중 스마트폰기 미사용 준수율은 전국(64.32%)과 비교해 서귀포시가 57.55%로 10%p가량 낮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현장에서 점차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신호준수와 무단횡단 금지 등 생활 속 교통법규 준수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문화 개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안파고정판 + 안파밴드 = 쿨고리 작업세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레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 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 실시 완료업체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계장원농장